“다른 남자”의 종교에 구원 없다

(사무엘상 31:1~13)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5.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다른 남자”의 종교에 구원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다른 남자”의 종교에 구원 없다

제목의 ‘다른 남자(The Other Man)’는 소설의 제목입니다. ‘The Reader(책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독일 작가 베른하르트 슐링크(Bernhard Schlink)의 또 다른 작품으로 여섯 편의 단편 소설을 모아서 출간한 책의 제목이자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아내의 죽음 뒤에 주인공이 아내 앞으로 보내진 편지들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아내에게 숨겨둔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아내가 명랑하다’는 말에 주인공은 강한 질투를 느끼고 인정할 수 없어합니다. 아내는 자기와 있을 때에는 환하게 웃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았는데 애인에게는 명랑한 여자였다는 사실에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과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결국 주인공은 아내로 가장해서 아내의 애인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던 중에 몰랐던 아내의 과거를 알아가고, 그런 아내와 살았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삶에 엄청난 허구와 공허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껴갑니다.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은 아내와 한 집안에서 살았던 모든 기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꼭 다른 남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에는

다른 존재를 들여놓고서 껍데기로만 인간관계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결국 아내를 가장해서 편지를 보냈던 아내의 남자와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막상 만난 아내의 애인은 사기꾼에다 허풍쟁일 뿐이었습니다. 삶의 유효성과 실용성과 적법성만을 따지고 살던 주인공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그 남자에게서 발견하고 마음에 들였던 것인데 무서운 일입니다. 이미 죽은 아내에 대해 배신감과 질투심을 표현할 길도 없고, 아내가 하필이면 사기꾼이자 허풍쟁이인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 안으로 들여놓는 대상에 대해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몸이 아무리 같이 있더라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관계일 뿐입니다.
성경의 선악과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상황 자체는 나를 둘러싸고 나의 반응을 기다리지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빈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서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자로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돈을 들여놓았다면 돈이 다른 남자가 되고,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여놓으면 이들이 다른 남자가 되고, 자식이나 건강을 들여놓았어도 다른 남자가 되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타락 이후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 마음에는 다른 남자를 들여놓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은 육체가 비참하게 죽는 것조차도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죽음이 멸망인 이유는 마음에서 다른 남자를 내보내고 더 이상 내 본래의 남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마음에 먼저 들여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이 세상을 들여놓고 느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마음에 다른 남자를 품고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한 결과가 오늘 사울이 당하게 되

는 멸망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음에 다른 남자를 품고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종교생활일 뿐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조차 이런 종교인으로 산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의 사울은 사건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에 다른 남자를 들여놓은 상태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생활의 시작은 삼상15장에서 시작됩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는 명령에 대해서 사울은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라고 하는데 이 순간에 사울의 마음에 다른 남자가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좋은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남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 하며 소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나 좋은 집, 좋은 차 등 물질적인 것들 외에도 추상적인 명예 성공 인기 건강 등이 탐스럽습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부부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안 되니 죽은 사무엘의 영혼까지 부르려고 할 만큼 열심이 특심했지만 멸망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나옵니다.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할 정도로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는데 공허하기만 합니다. ‘선민의 자부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품고 신을 찾는 종교생활을 하지만 선민은 그러한 종교생활로부터 구분된 자들입니다. 마음에 다른 남자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와 계신 자들이 선민이었고 할례 언약과 번제가 기본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번제의 기본 정신’은 유전적 죄적 체질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자꾸 다른 남자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돈 건강 자식 성공 취업 승진 결혼 등과 같은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염려하고 소원하게 하고 그 뒤에야 하나님을 찾는데 이 종교생활을 깨뜨리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다른 남

자를 품고 종교인이 된 나를 죽이는 역사가 번제와 십자가의 정신인데 사울은 끝내 이 종교인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믿는 한 그 기독교에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분에게 마음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세례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아버지와 내 마음이 결합된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법적으로는 부부로 살고 있지만 마음에는 다른 남자를 품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아말렉에게 인도했던 애굽인이 나옵니다. 그 애굽인이 삼상30:15절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참 선민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지 않게 부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부름이 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지 않으면 공허한 부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래서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야만 하는데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아담이 밉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 것들이 다른 남자가 되어서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멸망으로 끝나는 사울의 종교생활을 반복하는 것일 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인데 이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마음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등의 행위적 죄는 마음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음으로 비롯된 열매들입니다. 이 죄적 체질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꾸만 다른 남자인 돈 자식 건강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내 남자로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1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

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항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남자를 품고 하나님을 부르는 멸망할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른 하나님은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불상이나 다른 나라의 신들과 다름없는 신이었는데 사울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나의 마음에서 자식이 다른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설에서 주인공이 질투심에 불타게 되는 이유는 내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더 명랑해지고 환하게 미소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자식 건강 등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모두 다른 남자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을 마음에 담고 다른 남자로 환하게 웃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고 노하시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를 아내로 부르신 남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질투이고 진노입니다. 다른 남자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주님으로부터 부활주님 승천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이 따라 감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다른 남자들이 퇴치되고 하나님만이 내 남자가 되는 진정한 선민의 자격과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